

성인된 한국건축문화대상, 보다 성숙되어야...

Aged KAA(Korean Architecture Award) required to be more matured

김향년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담당이사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행이 벌써 20년을 넘겨 진정한 성인이 되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의 목적은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환경조화를 구현하고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또한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성인이 된 이번 행사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로 수상자 모두가 정당한 수상자인가?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설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 건축주에게 까지 시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한국건축문화 대상이 추구하는 대중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점은 틀림이 없다. 잘된 작품을 위해서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기에 이들 모두가 수상의 대상이다.

건축주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건축사의 작품에 대한 열정에 편승해 건축사를 힘들게 한 경우 이 건축주에게 시상했다면 과연 잘한 것인가? 시공자가 건축사의 의도를 벗어나 시공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경우 시공자에게 시상한 것은 잘한 일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이 잘해 수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도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둘째로 20년 동안 시상한 작품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 파주의 한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건축주가 집에 대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자랑을 하여 집을 둘러보던 중 입구 벽에서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동판을 볼 수 있었다. 그분들은 좋은 작품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아끼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돌아오면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이 20년이 지난 지금 20년 전 시상했던 작품들이 과연 잘 유지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선배 건축사 한분이 본인의 작품을 본인과 의논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건물을 망쳐놓았다고 분개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한국 건축문화 대상이라면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20년 전 시상한 작품을 재점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고 또 유지 관리를 잘 한 건물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 선배 건축사가 분개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진행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건축문화대상의 홍보 부족으로 일부 부문의 응모건수가 적어 본상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사전 홍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해외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으로 실시설계만 한국내 건축사가 출품을 한 경우 국내 건축사를 시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작품에 대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시상을 각각 하고 동판을 붙이는 것도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확고한 권위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을 21년째 시행하면서 매년 개선 사항이 나왔을 것이다.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된 시점에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욱 성숙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



필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주)서울건축을 거쳐 현재 (주)예향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담당이사과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